

건축은 생각을 담아 후대에 문화로 전해주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집

구본준 지음

지난 2012년 가을, 한국을 찾은 한 외국 건축가가 종묘(宗廟)를 가장 전 홀로 보고 싶다고 요청한다. 전례가 없어 고심하던 문화재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이를 허용한다. 15년 전 종묘를 본 감동을 잊을 수 없어 결례를 한 그는 종묘 정전과 마추해 합장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한 시간 동안 종묘를 본 건축가는 “종묘처럼 장엄한 공간은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축은 아마도 파르테논 신전 정도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종묘에 매료된 그는 스페인 ‘구겐하임 빌바오미술관’을 설계한 세계적인 현대 건축가 프랭크 게리였다.

구본준. 그의 이름 석 자를 기억하는 독자라면 최근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출간 소식을 고개를 갸웃했을 터다. 한겨레신문 건축 전문기자로 활동하던 저자는 2014년 11월, 이탈리아 현지 연수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유족들은 저자의 2주기를 기리며 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공공건축 에세이를 정리해 이 책을 엮었다. 저자는 이전 건축관련 책들과 달리 이집트 햇شمس 정제전,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태리 산 피에트로 광장 등 인류유산이 된 신성 건축물에 초점을 맞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들은 최



조선왕조는 국가 최고의 신성 건축물인 종묘를 시간 흐름에 따라 증축했다. 종묘는 110m나 되지만 위압적이지 않고 간결하고, 정제된 형태의 건축물이다. 매년 5월,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의식인 ‘종묘제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광주일보 자료사진>

대한 크고, 높은 신성 건축물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높은 집’은 짓기가 너무나 힘들고, 완성해도 제대로 사용하기 쉽지 않아 자연스럽게 ‘길고 넓게 짓기’로 변했다. 저자는 동·서양 신성 건축물 디자인에서 길고, 넓은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 늘어난 ‘줄 기둥’(列柱)에 주목한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 거장 잔 로렌초 베르니니는 ‘그리스 비레 미학의 절정’으로 일컫는 파르테논 신전을 응용해 도리아식 원기둥 284개, 각기둥 88개를 세우고, 그 위 지붕에 대리석으로 만든 성인 조각상 140개를 올려 산 피에트로 광장을 디자인한다. 특히 두 팔을 벌려 사람을 끌어안는 듯한 반원형 기둥배열로 신

의 위엄을 보여주는 공간을 구성했다. 저자의 시선은 중국 자금성과 20년마다 새로 짓는 일본 ‘이세 신궁’, 한국 종묘·경복궁 등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그 가운데 저자의 애정이 물씬 느껴지는 건축물은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인 종묘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왜 왕궁 대신 종묘를 먼저 짓고, 왜 일곱 칸짜리 종묘가 시간에 따라 열아홉 칸짜리 건물로 변했는지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또한 나치정권 건축가의 아들이 ‘기둥’을 어떻게 변용해 독일 국민을 꼭두각시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옆에 식재된 느티나무 일화를 얘기하며 허황

된 랜드마크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한 건축론’을 얘기한다. “건축이란 결국 우리의 생각을 담은 것, 그래서 후대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럼으로써 스스로 문화가 되고 문화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건축은 우리를 생각으로 잡아당겨 서로 어루만지게 합니다. 촉감과 시각과 이야기로 만지게 되는 집, 그런 집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전히 활자로 독자 곁에 살아 있는 듯한 ‘유쾌한 글쟁이’의 부재가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한겨레출판·1만45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책을 읽으면 책 속의 책들을 또 읽고싶다

질문하는 책들-빨간책방

이동진·김종혁 지음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창조적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행과 삶은 어떻게 살아있는지, 휴머니즘은 언제나 옳은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지. 영화 평론가 이동진과 소설가 김종혁이 함께 진행하는 팟 캐스트 ‘빨간 책방’이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던진 질문을 함께 곰곰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빨간책방’이 펴낸 두번째 서적 ‘질문

하는 책들-빨간책방에서 함께 읽고 나누는 이야기(인문, 교양, 지식 편)’는 ‘총, 군, 쇠’ 등 모두 9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맛깔스런 입담과 풍부한 지성으로 무장한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대화는 책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제대로 한다. 빨간책방은 지난해 발간한 ‘우리가 사랑한 소설들’을 통해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언 매큐언의 ‘속죄’, 줄리안 반스의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등 7권의 외국 소설을 소개한 바 있다. ‘서울대 도서관 대출 1위 도서’로 유명한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군, 쇠’는 1만 3000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의 흐름을 풀어낸 도서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창의적인 발상에 대한 이야기는 로버트 번스타인과 미셸 번스타인 부부가 쓴 베스트 셀러 ‘생각의 탄생’으로 풀어나가며 까칠한 여행 혐오자 빌 브라이스의 ‘발칙한 유럽 산책’을 이야기할 땐 유쾌함이 함께 한다. 또 비틀즈의 팬들이라면 꼭 소장하고픈 ‘비틀즈 엔솔로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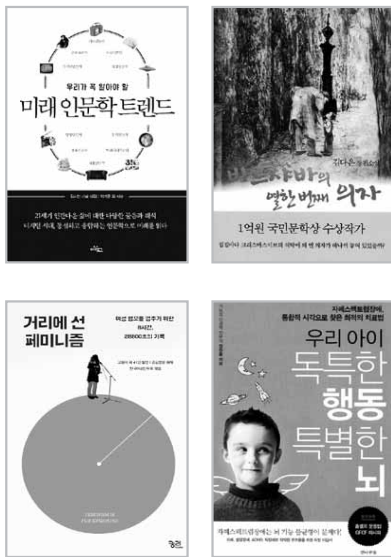
대한 글을 읽다보면 그들의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밖에 만날 수 있는 책은 나치와 소련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테렌스 데 프레스의 ‘생존자’, 철학을 모티브로 한 마크 블랜즈의 ‘철학자의 늑대’와 존 그레이의 ‘하찮은 인간, 호모 라피페우스’ 등이다. 또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살펴보는 데이비드 실즈의 ‘우리는 언제가 죽는다’, 열 두명의 작가에 대한 인터뷰가 담긴 문학 잡지 파리 리뷰의 ‘작가란 무엇인가’도 만날 수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언급된 책을 한번쯤 읽어보게 만든다는 점이다. <예담·1만5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미래 인문학 트렌드=사회가 변화하면서 인문학에 대한 기대도 바뀌고 있다. 인문학을 통해 위로받고 받고 싶어 하며 자존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인문학의 최신 흐름을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인문학이 나아갈 방향을 찾아본다. 1부에서는 삶과 사회와 소통하는 인문학으로 치유·음식·경제·영상·의료인문학을, 2부에서는 과학,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는 인문학으로 빅데이터·생명·신경·디지털인문학, 진화신리학을 소개한다. <아날로그·1만5000원>

▲바르샤바의 열한 번째 의자=집마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식탁에 왜 빈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었을까. 소설가 김다은은 안식년을 맞아 폴란드에 3개월간 머물면서 앞으로 어떤 소설을 써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다 폴란드 집집마다 크리스마스이브의 식탁에 빈자리가 하나씩 놓여 있는 이유를 알게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소설 세계를 찾게 된다. 작가는 어떤 끔찍한 고통과 운명을 맞닥뜨려도 영혼의 등경에 빛을 밝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처럼 펼쳐놓고 있다. <작가·1만2000원>

▲거리에 선 페미니즘=2016년 5월 충격적인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후, 추모를 넘어선 담론의 장이 서울 신촌 거리 한복판에서 열렸다. 담담하면서도 절절했던 그 8시간의 기록을 책에 담았다. 대독을 포함해서 40여 명의 자유발언자들은 성추행, 성폭력 경험부터 외모로 인한 압박과 옷차림에 대한 견열, 여전히 가족 내에서 존재하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 등을 힘겹게 고백하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다. <구리·1만2000원>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기능성신경학을 바탕으로 스펙트럼장애에 아이들의 뇌가 필요로 하는 자극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치료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대뇌반구 통합치료와 생의학치료는 무엇이며 식이요법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담았다. 쉬운 것부터 실행하다 보면 증상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아이를 보게 될 것이다. <전나무숲·2만5000원>

▲숨길 수 있는 권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나 사회는 너무도 쉽게 개인의 삶을 감시한다. 하지만 정작 개인은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대니얼 J. 솔로브는 ‘사생활=비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생활도 ‘사회적인 가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보강화론자들이 내세워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사생활은 희생되어야 마땅하다’라는 논리에 반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시아·1만5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세계 시민 수업 1~3=세계 시민 수업 시리즈. 1권 난민, 2권 석유 에너지, 3권 식량 불평등까지 빈곤, 인권, 환경, 평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관해 배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풀빛·각 권 1만2000원>

▲이제 우리가 꿈꿀 시간=잠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잠을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달래 주는 그림책. 머리맡에서 잠을 청하며 읽어 주기에 딱 좋은 그림책이다. 호기심이 왕성한 책과 엘리스 남매는 공놀이를 하다가 숲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이끌려 단 둘이 숲으로 들어간다. 깊은 숲속,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헨젤과 그레텔’의 장면을 연상시킨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수다로 푸는 유쾌한 사회=초등 사회 교과서 집필위원이자 초등 교사가 쓴 사회



와 친해지는 책. 아이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돈과 지도,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 스포츠 경기 등을 소재로 먼 과거부터 미래, 내 주변부터 세계 곳곳을 넘나들며 우리가 사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과함께어린이·1만1000원>

▲한밤중 개미 요정=‘개미 요정’ 시리즈를 발표하며 주목받은 은 동양화가 신선미의 첫 창작 그림책. 한겨울 밤, 개미 요정들은 아이에게 나타나 어릴 적 엄마와의 특별한 추억을 꺼내 놓는다. 순수한 아이의 눈에만 보이는 ‘개미 요정’을 통해 전통과 현대,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창비·1만30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금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솔향기맑은터.com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라 맛의향연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